

위튼대학의 신학과 세계관

Theology and Worldview of Wheaton College

양승훈

- I. 배경과 역사
- II. 현재의 규모와 재정
- III. 위튼의 신학
 - 1.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 2.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 3. 위튼의 종말론
- IV. 다양성과 동질성
- V. 맺음말



양승훈.

1955년 생으로 경북대 사대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반도체 물리학으로 이학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년 동안 한국과학재단 Post Doc.으로 시카고 대학에서 연구하였고 경북대학교 물리교육과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기획담당으로 사역한 바 있으며 1990년부터 2년 동안 미국 위스콘신 대학과 위튼대학에서 과학사와 신학을 공부한 바 있다. 저서로는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학문연구」, 「현대과학 정신과 기독교인의 대응」, 「기독교 세계관의 이해와 적용」 등이 있고, 수필집 「낮은 자의 평강」이 있다.

I. 배경과 역사

1800년까지 미국에는 작은 기독교대학이 25개 정도였고 이들 모두는 동부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1860년까지는 175개에 이르렀으며 이들의 분포도 동부를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소규모 기독교 교양교육대학 (Christian Liberal Arts College)의 설립 붐은 유럽에서는 찾아 보기 어려운, 미국만의 독특한 현상이었다. 이러한 대학들은 주로 목회자나 전도자, 혹은 개화된 시민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 아래 설립되었다. 이러한 소규모 기독교 교양교육대학 설립 붐 속에서 위튼대학도 만들어 졌다. 위튼대학은 1853년에 일리노이 인스티튜트라는, 일종의 주니어 칼리지로 시작하였으며 1860년에 비로소 위튼대학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위튼대학이라는 이름은 그 동네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대학부지를 기증한 위튼家の 이름을 따라 지어진 것이다.

위튼대학은 132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나 총장이 다섯 번 밖에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다. 설립자이며 초대 총장이었던 Jonathan Blanchard는 22년, 그의 아들 Charles Blanchard는 무려 43년을 재임하였다. 이들 Blanchard父子가 총장으로 재임하던 65년간 위튼은 오늘날의 복음주의적인 노선을 확립하였다. 3대 총장 J. Oliver Buswell, Jr.가 재임한 14년간 위튼은 학문적인 인정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이 때 대학원도 시작되었다. 4대 총장 V. Raymond Edman이 재임한 25년간 위튼은 시설과 자산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5대 총장 Hudson T. Armerding (17년간 재임)과 1982년에 취임한 6대 J. Richard Chase 총장은 이들 전임자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더욱 발전, 심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¹⁾

1) Paul M. Bechtel, *Wheaton College: A Heritage Remembered 1860~1984* (Wheaton, IL: Harold Shaw Publishers, 1984) Back Flap.

II. 현재의 규모와 재정

위튼대학은 현재 2,000여명의 학부생과 330여명의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학생은 학부에 60여명, 대학원에 2~3명 정도가 재학 중이나 대부분 미국에 있는 교포 자녀들로서 한국어를 전혀 못하거나 한국어보다 영어가 훨씬 편한 학생들이다. 순수하게 한국에서 유학한 학생들은 학부, 대학원 합쳐서 3~4명 정도이다. 해마다 지원자들에 대한 입학허가율은 60% 정도로 미국기준으로는 상당히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학부는 기독교 교양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학과가 있지만 대학원은 7개 학과만 있으며 모두 기독교 사역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학과들이다 (신학, 임상심리학, 선교학, 매스콤, 저널리즘, 전도학, 學際연구). 매스콤학과 부설 기독교방송국 (WETN/88FM)이 빌리그레함센터 지하에 자리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찬양과 메시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선사한다.

임상심리학과는 위튼대학 사상 처음으로 내년부터 박사학위 과정을 개설한다. 신학과도 박사학위 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오고 있으나 우선 재정적으로 모금이 덜 된 상태이고 박사학위를 개설함으로 지나치게 학문중심의 학과가 되어 자유주의화 될까봐 염려하는 분들이 많아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1970년대 말 위튼대학에 3,000만불을 회사하여 빌리그레함센터를 만든 빌리그레함재단 (빌리 그레함이 위튼 졸업생임)에서는 위튼이 선교보다 학문을 중시한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다고 한다. 위튼대학에서는 한 학과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약 200만불 정도로 잡고 있다. 아무래도 졸업생들 중에 병원을 개업하는 등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많아 가장 먼저 모금목표에 도달한 모양이다. 물론 200만불이라는 돈은 이미 수준급 교수들이 오래 전부터 연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석사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해 왔으므로 미비한 전문잡지 구독과 과월호 구입, 전문 도서구입 등에 주로 소요되는 비용임을 감안해

야 한다. 만일 아무 것도 없는데서 출발한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위튼의 수업료는 학기당 학부는 16학점 기준으로 5,000불, 대학원은 12학점 기준으로 3,000불 정도로 일년 총 학비(생활비 포함)는 가족이 없는 경우 약 14,000불 정도가 소요된다. 특정한 교단에 속해있지 않아 교단으로부터 보조가 없고 시카고라고 하는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집세가 비싸 다른 교단산하 학교들 보다는 학비가 다소 비싼 편이다. 학생등록금에 대한 학교운영비의 의존률은 70%정도로 미국의 소규모 기독교대학으로서는 우수한 편이다. 재단은 약 1억불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으며 장래 재단으로 전입될 4천만불 정도의 자산을 확보하고 있어서 미국의 소규모 기독교대학들 중에서는 최고의 재정적 안정을 자랑한다.

여기서 장래 재단으로 전입될 자산이란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여서 다소의 설명이 필요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부의 세습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부모가 자손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경우 고율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러므로 돈이 있는 많은 노인들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와 오면 자선기관이나 교육기관들에게 재산을 헌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신이 살아 생전에는 생활비가 필요한데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지 못하므로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재산을 회사한테나 학교가 자기 재산을 관리해 달라는 위탁요청을 미리 하게 된다. 그러면 학교는 이 재산을 관리하면서 헌납자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생활비를 지급하다가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재산이 학교에 헌납되게 한다. 모금은 사립학교의 생활이 걸려있는 중대사이므로 위튼대학에는 따로 모금담당 부총장이 상근직으로 있으며 모금담당 관련부서에 일하는 직원만도 5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전임 총장이나 이사장 등은 현직에서 은퇴해도 학교를 위한 모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공동체 정신을 발휘한다.

Ⅲ. 위튼의 신학

언젠가 위튼대학의 역사신학 교수이며 다혈질인 Robert Weber박사는 Carl Henry 와 J.I. Packer를 대주교라고 한다면 위튼대학은 “복음주의의 바티칸”이며 Billy Graham은 복음주의자들의 교황이라고 농담을 한 적이 있다. 표현이 좀 지나치긴 하지만 역사신학자다운 농담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같은 신학과 교수들 간에도 사람마다 다소 의견의 차이는 있으나 위튼대학의 신학을 복음주의(Evangelicalism)라고 하는데는 아무도 이의가 없다.

그러면 복음주의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의 정의가 있지만 George M. Marsden의 견해를 살펴보면 복음주의란 (1) 성경의 권위와 신뢰성 (Reliability), (2) 중생에 의한 영원한 구원, (3) 여러 가지 성경적인 덕목을 보여 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는 개신교 운동의 하나이다.²⁾ 복음주의의 정의로부터 볼 때 복음주의는 어느 특정한 교단의 입장이 아니라 여러 보수적인 교단, 즉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하는 여러 신학조류들을 포함하는 일종의 “보수대연합”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복음주의의 범주 속에 드는 신학조류의 예를 든다면 개혁주의, 근본주의, 오순절 신학, 웨슬리안 신학, 성결교 신학, 성공회 신학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교단이나 신학사상들 중에서 복음주의의 신조들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복음주의의 범주에 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 예로 일부 복음주의 진영에 속했던 신학자들 중에서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거나 예수님 아니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거나(종교다원주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복음주의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개혁주의는 복음주의 내에 있는 하나의 신학적 조류라고 할 수 있다. 물

2) George M. Marsden, *Encyclopedia of Religion*

론 개혁주의는 그 유래에 있어서 종교개혁에까지 거슬러 올라감으로 현대 복음주의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복음주의 운동 자체가 일종의 연합운동이므로 신학사상을 분류할 때는 개혁주의가 복음주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개혁주의는 성경의 무오성, 무흠성, 중생에 의한 구원 등 근본 주장에 있어서는 복음주의와 비슷하나 몇몇 가지 점에서 강조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개혁주의자들은 말 그대로 현실의 삶을 말씀 속에서 개혁해 보려는, 즉 삶과 문화적 영역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삶이나 문화활동의 영역에도 과감히 뛰어들어 적극적으로 세상을 변혁시킬 것을 강조한다. Richard Niebuhr가 말한 다섯 가지 그리스도와 문화의 양태들 중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에 해당하는 문화관 내지 세상관을 지지한다.³⁾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의 일부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개혁주의 교회의 세속화 내지 자유주의화를 우려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한 예로 개혁주의 본거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칼빈대학의 일부교수들이 (Howard Van Till, Menninger, Davis Young 등) 우주진화와 대진화는 물론, 화학진화까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⁴⁾ 이들은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 세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도리어 세상에 의해 “변혁된”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복음주의자들은 문화활동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개혁주의자들처럼 문화활동에서 적극적이지는 않다. 한때 복음주의자들은 지나치게 개인 경건과 구원에만 치중하고 사회의 구조적 불의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도피적이라는 비난도 받아 왔다. 여기에 자극되어 최근에는 복음주의적 사회참여에 대

3) H. Richard Niebuhr, *Christ and Culture* (New York: Harper & Row, 1983). 한국 어판으로는 이미 오래 전에 구관이 김재준씨의 번역으로 출판된 바 있다 (그리스도와 문화, 대한기독교서회 (1958)).

4) 세사람의 공저, *Science Held in the Hostage* 나 *Howard Van Till The Fourth Day* 를 보라.

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Ronald Sider는 복음주의적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학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위튼의 분위기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낙태찬반 논쟁이나 LA폭동, 유고슬라비아 사태, 소말리아의 기아 등에 대해서 위튼은 어느 정도 침묵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는 물론 위튼이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어떤 성명서 등을 발표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공식적인 입장표명이나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려니와 위튼을 대변할 만한 신학과나 철학과, 역사학과, 선교학과 등의 교수들 중에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글이나 책 등을 낸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이다. 개인적으로 만난 교수들 중에도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 평균 미국인 이상의 관심을 표시하는 분들을 별로 보지 못했다.

또한 다른 개혁주의 학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학문과 신앙의 통합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위튼은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학원에는 기독교적 시각에서의 학문연구를 위해 학제연구 (Interdisciplinary Studies) 전공이라는 것이 있지만 칼빈의 MACS (Master of Arts in Christian Studies) 프로그램처럼 기독교적 세계관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학문과 신앙의 통합이라기보다 수평적인 통합의 모습이 더 강한 것 같다. 물론 학생수도 별로 없지만 때로는 학제연구는 뚜렷한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강의들을 듣거나 선교지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신학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고 신학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위튼은 선교에 대해서는 상당한 열정을 갖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의 선교관련 프로그램들을 적극 지원할 뿐 아니라 학생들 중에서도 선교사 지망생들이 많고 교수들도 방학이나 안식년 등을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등지에서 단기선교사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교수들, 특히 신학과나 선교학과, 기독교교육, 전도학과 교수들 중엔 상당수가 선교사 출신이다. 어쨌든 이런 피상적인 모습만 가지고 위튼의 신학을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위튼 공동체의 일원으로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공부를 하면

서 피부로 느낀 것은 위튼의 분위기는 캐나다의 기독교학문연구소 (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나 미국의 칼빈대학 같은 개혁주의 학교들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2.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복음주의는 근본주의와 같은 뿌리에서 출발하였으나 성경에 대한 견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의 무오성과 무흠성에 대한 견해가 달라 1920년대부터 가시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하였다.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플라톤이나 공자의 책과 같은 고전의 하나로 보는 자유주의자들의 견해를 배격하지만 성경의 한자한자가 축자적으로 (Literally) 영감하였다는 근본주의자들의 견해도 동의하지 않는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며(Inerrant, Infallible)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믿지만 성경기자들의 배경과 성품이 성경기록에 반영될 수 있다는 소위 유기적 영감설(Organic Inspiration) 혹은 역동적 영감설 (Dynamic Inspiration)을 지지한다.

성경에 대한 축자설과 역동설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창세기 1~3장의 창조론 논쟁이다. 역동설이나, 축자설이나에 따라 복음주의자들은 자유주의 복음주의자들(Liberal Evangelicals)과 근본주의 복음주의자들(Fundamental Evangelicals)로 나뉘어 지는데 전자의 입장을 표방하는 학교로는 위튼대학을 위시하여 칼빈대학, 플러신학교, 트리니티신학교, 웨스트민스터신학교, 도르트대학, 바이올라 등 미국의 주요 보수계 학교들이고 후자의 입장을 표방하는 기관으로는 창조과학연구소(ICR)와 달라스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미국남침례교 계통의 신학교들이다. 이들의 주장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게 있다면 역시 창세기 1장에서 “날”(YOM)에 대한 해석의 차이이다. 근본주의 복음주의자들은 음을 24시간을 하루로 해석하며 원칙적으로 James Ussher 대주교가 성경의 계보(係譜)를 근거로 계산한 인간의 연대를 지구 및 우주연대 계산의 근거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지구와 우주의 연대를 6천 내지 1만년으로 주장한다. 이에 반해 자유주의 복음주의자들은 “욥”을 긴 기간으로 보아 지구와 우주의 연대를 훨씬 길게 잡으며 방사성 동위원소법으로 측정한 지구와 지층 연대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생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며 대진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과학적 창조론자들과 의견을 같이 한다.

창조론과 관련하여 위튼의 입장은 욥을 24시간 하루로 보지 않고 긴 기간으로 보며 점진적 창조론(Progressive Creationism)을 받아들인다. 일부 교수들은 문자적 해석을 받아들이지만 신학과와 지질학과, 생물학과 교수들은 대부분 점진적 창조론을 받아들인다. 얼마 전 Richard Chase 총장은 창세기 1장의 하루를 24시간으로 보는 것을 반대하며 과학적 창조론 (Scientific Creationism)의 주장이 잘못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3. 위튼의 종말론

종말론에 있어서 위튼은 상당히 보수적이다. 위튼의 교수들은 흔히 개혁주의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無天年說 (A-Mil)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 듯하나 대체로 근본주의자들을 포함하여 보수주의자들이 지지하는 前天年說 (Pre-Mil)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수를 임용할 때 받는 서약문에는 천년설이 명시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적은 없다. 그러나 흔히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지지하는 後天年說 (Post-Mil)에는 반대하며 근본주의자들이 많이 지지하는 세대주의 (Dispensationalism)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IV. 다양성과 동질성

기독교대학이라 할지라도 교수, 직원, 학생 등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이므로 사람마다 생각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 위튼대학 역시 160여명

의 전임교수와 이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직원들, 2,40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커다란 공동체이므로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 또한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나 위튼대학의 신학적 특성을 좌우하는 신학과 교수들의 경우 매우 다양한 배경을 갖는다. 한 예로 조직신학자인 Timothy Phillips는 남침례교 출신이며, 신약학자인 Julius Scott와 W. Elwell은 장로교 출신, 성서고고학자인 John McGray는 감리교인, 초대교회사가 Robert Weber는 성공회 교인이며 중세교회사가 Dennis Ocklom은 장로교인이다. 신학과 교수들뿐 아니라 다른 학과의 교수들도 다양한 교단배경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앙의 주요한 사안(事案)에 있어서는 비슷한 견해를 갖는다. 이것은 대학당국이 구성원들의 신앙적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대학은 사람들을 선발할 때 매우 신중하며 분명한 서약을 받는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신학적인 견해를 정립하기에는 아직 어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고백서를 제출하는 정도에 그치지만 교수들의 경우에는 매우 엄격하다. 성경에 대한 견해는 물론, 대부분의 주요한 신학적인 이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만일 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왜 그러한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요구한다. 물론 사소한 문제에서의 불일치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견해가 다를 때는 채용을 앞게 된다. 물론 채용된 후에도 견해가 달라지게 되면 학교를 떠나야 한다.

둘째, 모든 사립대학들이 그러하듯 위튼대학도 역시 이사회에 의해 신앙 고백이나 교수채용과 같은 주요한 사안의 최종적인 결정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세세한 신학적인 견해에 있어서는 모든 이사들이 신학자가 아니므로 신학과 교수들에게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신학과 교수들은 이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자문역을 하며 때로는 특정한 토픽을 논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한다.

한 예로 수년 전에 교수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냐를 놓고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이 때 Richard Chase 총장의 요청에 의해 신약학자

Julius Scott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입장을 정리하여 총장에게 제출한 적이 있다.

또 다른 예로 최근에는 창조론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사들과 일부 비자연과학 분야의 교수들 중에는 일부 ICR에서 주장하는 과학적 창조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총장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신학과 교수(대표적으로는 Timothy Phillips), 생물학과(대표적으로는 Pattle P.T. Pun),⁵⁾ 고고학과 교수(예를 들면 Arnold) 들은 ICR 주장의 일부 주요한 부분에서 의견을 달리한다. 즉, 이들은 ICR과 같이 종의 한계를 뛰어 넘는 대진화에는 반대하지만 지구연대가 6천년 정도이며 거의 대부분의 지층들이 노아홍수 때 형성되었다는 주장에는 반대한다. 이들은 창조주간의 전부 혹은 일부의 “날”(YOM)이 24시간 하루라기 보다 오랜 기간일 수 있으며 있다고 해석한다. 이들은 소위 점진적 창조론을 지지한다. Scott교수의 말대로 아마 오래지 않아 이 문제에 관한 최종적인 결론을 위해 학내 위원회가 구성될 것 같다.

셋째, 학교 당국은 가능하면 교수들이 신학과에서 정규교육을 받도록 권장한다. 그래서 많은 교수들이 한 학기에 한 과목 정도씩 수년 동안 수강하며 신학으로 문학석사 과정을 마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비단 교수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직원들, 때로는 이들의 배우자들까지 정규 신학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다.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학과의 교수들이나 직원들이 신학교육을 받는 것은 교육을 받는 당사자들의 유익만 있는 게 아니다. 이들의 교육은 위튼대학 공동체를 하나의 신학사상으로 묶어주는 중요한 바인더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선교에 대한 강조를 통하여 대학의 세속화를 방지한다. 위튼 캠퍼스에는 일년 내내 수많은 선교관련 회의들이 모인다. 특히 여름 방학 중에는 대형 선교관련 집회들이 끊임없이 열린다. 대

5) Pun은 위튼의 점진적 창조론자의 대표격이다. 그의 입장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 문헌을 보라. Pattle P.T. Pun, *Evolution: Nature & Scripture in Conflict?*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2).

학당국은 저렴한 비용으로 학교시설을 대여해 줌으로 이러한 행사들을 간접적으로 지원, 격려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위튼에서 선교사 350여명을 포함하여 2,300여명이 모인 제2차 한인세계 선교대회도 이 중의 하나이다. 선교에 대한 관심은 거대한 대회의 유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단기선교훈련 프로그램들이 여름방학 중에 다양하게 개최되며 교수들 중에도 교환교수 등의 형태로 반년 혹은 일년씩 단기선교사로 나가기도 한다.

한 예로 이번 여름 유스호스텔이라는 단기선교훈련 프로그램은 암스테르담에서 열렸는데 20~30여명의 위튼학생들이 참석하는 것을 보았다. 조직신학자인 Timothy Phillips 교수는 해마다 여름이면 나이지리아에 있는 신학교에 강의하러 간다. 또한 교수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아시아 등지에서 중, 장기 선교사로서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이들은 자연스럽게 학교를 선교지와 연결시키는 통로가 된다. 또한 홀리랜드 프로그램이라는 성지순례 프로그램도 있다. 캠퍼스에서 예비교육 2주를 포함하여 총 7주동안 이스라엘을 위시하여 로마, 아테네, 이집트 등지를 5주동안 돌아오는 8~10학점짜리 프로그램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유적지 발굴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스라엘 정부의 협조아래 오래 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구약학 교수 두 분이 인솔하며 40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8~10학점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포함한 총 여행경비가 4,000불로서 비싼게 흠이긴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대단하다. 이러한 필드활동들은 차츰 아카데미즘에 빠지기 쉬운 기독교대학을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한다.

V. 맺음말

교회를 포함하여 이 세상에 있는 단체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완전할 수가 없다. 육체에 거하며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위튼대학 역시 여러 가지

내외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 한 예로 위튼은 다른 여러 기독교대학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거절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기독교대학들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편이나) 끊임없이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재정적으로 대규모 대학에 못미치니 좋은 교수들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고 좋은 교수들을 유치하지 못하면 좋은 학생들을 모집하기가 어려워진다. 한 예로 작년 한 해 동안 위튼을 떠난 교수들이 10명이 넘는다. 전체 교수의 수가 불과 160여명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상당한 수이다. 물론 모두가 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떠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떠난다 해도 그것을 노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상당수는 경제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학문적으로 우수한 기독교대학을 만들려는 노력은 돈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데 영적인 양보없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위튼의 고민이다.

또 다른 문제는 졸업생들의 진로다. 위튼은 다른 소규모 기독교대학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교양교육대학 (Christian Liberal Arts College)이다. 그러므로 직업훈련에 있어서 다른 대규모 대학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지난 수년 동안 미국사회를 강타한 불경기는 기독교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문을 더욱 좁게 만들었다.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를 얻고 있으며 그나마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어서 학교당국자들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졸업생들의 취업상황은 곧 우수한 고교졸업생들의 유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학과에서 재학 중 학생들을 연구소나 회사 등에서 인턴쉽을 하도록 적극 추천하고 있으며 물리학과와 경우 위튼에서 3년을 공부하고 다른 세속대학에 전학하여 (Transfer) 그 곳에서 학업을 마치는 경우 그 곳 졸업장과 더불어 위튼 졸업장도 수여하는 骨肉之策을 채택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튼 졸업생들의 실업상황은 기독교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믿는 교수들의 신념에 도전하고 있다.

또 하나 대학경영자를 곤란하게 하는 문제는 입학하는 남녀 학생들의 비율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미국사회에서 성개방풍조와 마약문제 등은 학부모들의 마음을 조리게 한다. 대학을 안 보낼 수도 없고 보내자니 잘못될까 두렵고… 우리나라와는 달리 거의 모든 학생들이 자기 집을 떠나 먼 타지에서 공부하는 미국의 경우 일단 학생들이 집을 떠나면 부모들이 그들의 생활을 감독하기란 극히 힘들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아들을 둔 부모보다 딸을 둔 부모들의 고민이다. 그러므로 많은 기독교인 부모들, 특히 딸을 둔 부모들은 규율이 엄격하고 비교적 안전한 기독교대학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위튼도 여학생들의 수가 남자보다 점점 많아져 고민이다. 가능하면 남녀의 비율을 같게 하려고 노력하나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이미 여학생이 수 퍼센트 더 많다고 한다.

위에서 예를 든 몇몇 문제는 오늘날 미국의 기독교대학들이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중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중 어떤 것들은 세속대학이 당면하는 문제들과 같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기독교대학의 정체성(正體性)을 유지하려고 할 때 불가피하게 부딪치는 문제인 경우가 많다. 위튼대학은 미국의 기독교대학들 중 학문적으로 가장 우수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확고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학교라고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한국적인 실정 속에서 이들을 어떻게 이겨 나갈지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의 기독교대학이 만들어져 꽃피고 열매맺는 것만을 바라보는 감상적인 단계를 넘어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닥칠 때를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대학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열매들은 선각자들의 피눈물 나는 기도과 노력이라는 거름 위에서 맺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